

CIS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회의 자료

|| 목 차 ||

1. 회의 개요	-----	1
-----------------	-------	---

2. CIS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

- CIS 국제교류 정보 안내 및 방향 제안 ----- 3
- CIS 교류추진 사례공유(대구광역시) ----- 33

1 회의 개요

□ 개요

- 일 시 : 2024. 10. 2(수) 14:00~16:00
- 장 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
- 참석대상
 - 지자체 : 국제교류 담당자 등(경남도청)
 - 멘 토 : 이지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김희란 겸임교수(계명대학교)
 - 협의회 : 국제교류부장, 담당자

□ 회의내용

- CIS 교류 관련 국가 특성 및 협력 전략 등
- CIS 교류 관련 질의·답변

□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14:10	`10	회의 순서 및 참석자 소개	국제교류부장
14:10~14:35	`25	교류도시 추천 및 정보 안내, 교류 추진 방향 제안 등	이지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14:35~15:00	`25	CIS 교류 추진 사례 공유 (대구광역시 본청 사례)	김희란 겸임교수 (계명대학교)
15:00~16:00	`60	지자체 질의, 응답	전체 참가자

2 CIS 국제교류 멘토링 자문

2024.10.2.

경상남도-중앙아시아 2개국 협력 제안

이지은(한국외대)

1. 중앙아시아 2개국 기본 정보
 - 1.1. 카자흐스탄
 - 1.2. 우즈베키스탄
2. 중앙아시아 2개국 주요 도시 정보 및 산업
 - 2.1.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알마티
 - 2.2.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3. 경상남도 협력 분야 제안
 - 3.1.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알마티
 - 3.2.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부록. 중앙아시아 2개국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현황

1. 카자흐스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현황
2. 우즈베키스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현황

1. 중앙아 2개국 기본 정보

1.1. 카자흐스탄

표 1. 카자흐스탄 종합 개관

국호	카자흐스탄 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수도	아스타나(Astana)
면적	272만4900km ² (한반도 12배, 남한 27배/세계 9위)
인구	약 19,606,633명(세계 66위)
인구밀도	7명/km ² (세계 236위)
민족구성	카자흐인(70.7%), 러시아인(15.2%), 우즈베크인(3.3%), 우크라이나인(1.9%), 위구르인(1.5%), 독일인(1.2%), 타타르인(1.1%), 고려인(0.6%)
교민 현황	고려인(118,450명), 재외국민(944명)(2021년 기준)
출산율	3.32명 (2021년 기준)
언어	카자흐어(국어), 러시아어(공용어)
종교	이슬람교(69.3%), 기독교(17.2%) (2021년 기준)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임기 7년)
대통령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2019.03~)
총리	올자스 베크테노프(Oljas Bektenov, 2024.02~)
GDP	\$2,967억(명목, 2023년) / \$6,934억(PPP, 2023년)
1인당 GDP	\$14,778(명목, 2023년)/\$34,534(PPP, 2023년)
화폐	텡게(KZT)/ 기호 : ₸
행정구역	17개 주(Oblast), 3개의 직할시, 1개의 수도
인간개발지수(HDI)	0.802/ 67위 (2022년)
시간대	UTC+5(서부/동부) *2024년 3월 단일 시간대로 적용하여, 한국과의 시차는 기존 -3에서 -4시간으로 변경 ¹⁾
무비자 입국	최대 30일
국가코드 및 국가번호	KZ +7

■ 정치

- 정부 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7년, 단임제)²⁾
- 의회 구성 : 양원제(총 156석, 상원 49석, 하원 107석)

1)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카자흐 전국 단일시간대(한국시차-3→-4) 적용(2024.3.1.부터)” 2024.02.14., https://overseas.mofa.go.kr/kz-ko/brd/m_8994/view.do?seq=1347165 (검색일:2024.05.17.)

2) 2022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 변경됨.

○ 주요 인사

- 대통령 :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2019.03~)
- 상원의장 : 아쉽바예프(Mauren Ashimbayev, 2020.05~)
- 하원의장 : 코샤노프(Yerlan Koshanov, 2022.02~)
- 총리 : 벡테노프(Oljas Bektenov, 2024.02~)
- 외교장관 : 틀레우베르디(Mukhtar Tileuberdi, 2023.08~) - 부총리 겸직

○ 주요 정부 기관

- 대통령 산하 헌법 기관 카자흐스탄 민족 회의(Assembly of the People of Kazakhstan)에는 각 민족 대표 선출

■ 경제

-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시간 내 경제 성장 이룩, 현재 중앙아시아 경제 맹주로 부상
- 카자흐스탄 경제는 석유·가스 관련산업에 집중, 총 산업 생산의 54% 이상 차지하여 의존도 높음/ 단순한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 정책 실시 중이나 효과는 미미/ 2000년 이후 연평균 4%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유지³⁾
- 농업은 GDP의 5% 차지, 주 생산품은 곡물(밀), 감자, 포도, 야채, 멜론 등/ 주요 축산품은 유제품 가공류, 고기, 양모 등/ 농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카자흐스탄 알마티, 싴켄트 등 남부 지역에 스마트팜 등 농업 부문에서의 현대화 진행
- 카자흐스탄 전체 고용인구 12%가 농림수산업 종사, 정부 정책으로 ‘농업 산업 단지 개발 프로젝트 2022~2026’ 추진 중/ 북부 카자흐스탄 주(州)에 2년 동안 총 21개의 낙농장 신설, 우유 총생산량 64만8000톤 달성(카자흐스탄 전체 생산량의 10.3%에 해당)/ 카자흐 정부는 젓소 400마리 규모의 낙농 목장, 1000톤 규모의 채소 저장소, 연간 5000톤 규모의 양계장 및 양식장 건설을 목표로 정책 진행⁴⁾

3) 정민현, 김초롱. 2021. “카자흐스탄 경제 분석과 한·카자흐 신경제협력 방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4, No. 46, p. 1. /pp1-11.

4) KOTRA. “2023년 카자흐스탄 농업 동향.” 2023.04.05., <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No=345137&mid=a30400000000&systemcode=04> (검색일: 2024.05.20.)

■ 역사

- 카자흐스탄은 스텝 초원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유목 문화 특성을 가짐/ 기원전 200년경 중국 북부로부터 훈족(Huns)이 와서 현재의 동부 카자흐스탄 장악
- 이후 유연(劉淵)·철륵(鐵勒) 등 다양한 유목 민족이 카자흐스탄 일대를 차지하였고, 6~7세기경에는 투르크(돌궐) 제국 건설/ 이때부터 투르크의 언어와 문화는 현대 카자흐스탄이 자신들이 투르크 민족이라 여길 만큼 영향 미침
- 1218~1221년경 몽골의 칭기즈칸이 카자흐스탄 동남부를 시작으로 현재의 카자흐스탄 전역을 석권하고 그의 첫째 아들 주치의 후손이 1240년 킵차크 칸국(Kipchak Khanate; Golden Horde)을 세움
- 티무르제국이 우즈베크 칸국(Uzbek Khanate)에 의해 무너지고 15세기 초에 카자흐인이 투르키스탄(지금의 중앙아 지역)에 등장하였고, 그 가운데 유목 성격이 강한 부족이 카자흐칸국(Kazakh Khanate)을 건설
- 카자흐 칸국은 쥬즈(Juz)라 불리는 3개 부족 통합체(대쥬즈 Great Juz :/ 발하쉬 호수 남부 지역), 중쥬즈(Middle Juz : 카자흐 중부), 소쥬즈(Little Juz : 카자흐 서부)로 나뉘었으며, 현재에도 카자흐인들은 자신의 출신을 구분 시 쥬즈 개념 사용⁵⁾
- 이후 17~18세기 카자흐 칸국들을 괴롭히던 준가르(Dzhungar)의 침략과 지배로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쇠퇴하였고, 청제국과 러시아인들의 중앙아시아로의 유입으로 점차 칸국 입지 축소
- 18세기 소쥬즈 아블라이 칸 제정러시아에 보호 요청,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 본격화, 1860년경 현재 카자흐스탄 지역 대부분이 러시아에 합병
- 1917년 제정러시아 내 볼셰비키 혁명에서 카자흐 민족 지식층인 알라쉬 오르다의 독립운동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내 소비에트 정권 수립/ 당시 러시아인들은 키르기즈와 카자흐 민족 구분 혼선으로 현재 카자흐스탄 지역에는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 수립⁶⁾
- 소련 공산당은 1924~1925년간 중앙아시아 지역에 민족을 기반으로 새로운 공화국 구성 개혁안을 추진 결과, 1925년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이 탄생/ 1936년 카자흐스탄은 소련 구성 공화국으로 승격되어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

5) 카자흐인의 정체성은 정주가 아닌 유목 문화에 있으며, 쥬즈는 혈연에 기반한 씨족 개념

6) 중앙아시아 지역은 유목 문화이기에, 정주 문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움. 20세기 초, 러시아에서는 카자흐를 '키르기즈'라 부르고, 키르기즈를 '카라 키르기즈(검은 키르기즈)'라 불렀으나 1925년 국경획정과 함께 명칭이 현재 부르는 카자흐와 키르기즈 개념이 확립됨.

주의 공화국 수립

- 1950년대 말 흐루시초프 공산당 서기장 집권 시기 추진된 ‘미개척지 개간 정책’으로 카자흐스탄 북부에 약 8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인들의 이주, 본격적인 식민 시작/ 1960년대 초에는 전체 930만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인구 중 러시아인 43%, 카자흐인이 29%라는 기형적인 민족 구성 초래/ 당시 고려인들 또한 많이 이주
- 1989.6월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나자르바예프는 1990.4월 카자흐스탄 최고인민회의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 이어 1991.12.1. 치러진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 98.7%의 지지율로 대통령 당선
- 1991.12.16. 소련 구성 공화국 중 가장 늦게 카자흐스탄 공화국 독립 선언

■ 종교 및 사회 문화⁷⁾

○ 종교

-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인구 가운데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나 세속주의 국가에서의 이슬람이라는 점이 특징
- 소비에트 시기 이슬람을 비롯한 다양한 종교와 이를 믿는 민족이 유입, 혼재되면서 세속주의와 종교 다양성 안착된 편/ 이슬람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편이며, 중동 이슬람국가에서처럼 엄격히 따라야 하는 종교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전통, 문화의 일부로 여기는 인구가 대부분
- 중앙아시아에 이슬람이 전파(7세기)되기 전 존재하던 조로아스터교 등의 흔적도 남아있고, 소련 시기 이슬람이 급진적 성향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하던 정책 지속
-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현대 중앙아 5개국은 헌법상 세속주의 국가/ 다만, 각 국가의 특성마다 사회 내 이슬람의 정도가 상이/ 한국 내 기독교 혹은 불교 신자들의 개인 특성에 따른 신앙 수준이 있는 것과 유사

○ 사회 문화

- 카자흐스탄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워(북부 국경 약 7천 킬로 공유) 중앙아 5

7) 중앙아시아 사회, 문화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지은(2022). 『변화하는 중앙아시아 사회와 문화』 서울: 다해 서적 참조.

개국 가운데 가장 세속적, 러시아화된 사회로 분류

- 동시에 대가족제, 끈끈한 공동체, 일상생활에서 세대 간 큰 편차 없이 전통 및 문화 유지, 전근대적 혹은 보수적 사고방식 또한 존재
- 식문화는 홍차와 고기, 요거트 및 치즈, 말린 과일 및 견과류 등으로 구성
- 한국 K pop의 영향을 받은 Q pop이 최근 젊은 세대에 큰 인기

■ 기후 및 지리

- 대륙성 기후로 연교차 및 일교차 매우 큰 편, 영토가 방대하여 북부/중부/남부 간의 격차도 큼/ 사계절 존재
 - (겨울)(북부)길고 추우며 1월 평균 기온 -22°C , (중부) 1월 평균 기온 -18°C , (남부) 온난한 편으로 1월 평균 기온 -3°C .
 - (여름)보통 길고 건조함. (북부) 따뜻하며 7월 평균기온 $20\sim 24^{\circ}\text{C}$, (중부) 더우며 7월 평균기온 26°C , (남부) 무더우며 7월 평균기온 30°C .
 - 여름의 경우 강수량이 많지 않아 건조하나, 최근 기후변화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도가 오른 편
- 카자흐스탄의 면적은 세계 9위이자, 러시아와 6,846km, 우즈베키스탄과 2,203km, 중국과 1,533km, 키르기스스탄과 1,051km, 투르크메니스탄과 379km의 국경을 공유하는 내륙국가
 - 지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카스피해에서 알타이산맥, 북쪽에서 남쪽으로 서부 시베리아 평원 에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와 사막까지 뻗어있음
 - 주요 하천 및 바다로는 발하쉬, 차른협곡, 우랄 강, 시르다리야 강, 아랄 해 등이 있음.

1.2. 우즈베키스탄

표 2. 우즈베키스탄 종합 개관

국호	우즈베키스탄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수도	타슈켄트(Tashkent)
면적	447,400km ² (한반도의 약 2배, 남한의 4배)
인구	약 37,030,884명(세계 40위)
인구밀도	80.2명/km ² (세계 138위)
민족구성	우즈베크인(84.5%), 타지인(4.8%), 카자흐인(2.4%), 카라칼팍인(2.2%), 러시아인(2.1%), 고려인(0.6%)
교민 현황	고려인(약 170,000명), 재외국민(약 3000명)(2018년 기준)
출산율	3.17명 (2021년 기준)
언어	우즈베크어(공식 국어), 러시아어(통용어)
종교	이슬람교(88%), 러시아정교(9%), 기타(3%)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임기 7년) ⁸⁾
대통령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총리	압둘라 아리포프(Abdulla Nigmatovich Aripov, 2016~)
GDP	\$1,044억(명목, 2023년) / \$4,018억(PPP, 2023년)
1인당 GDP	\$2,667(명목, 2023년)/\$10,936(PPP, 2023년)
화폐	숨(so'm/сўм)/ 기호 : UZS
행정구역	12개 주(viloyat), 1개 자치공화국(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1개의 수도(타슈켄트)
인간개발지수(HDI)	0.727/ 106위 (2022년)
시간대	UTC+5(서부/동부)/ 한국과의 시차 -4시간
무비자 입국	최대 30일, 3일 이내 거주등록 필수(호텔의 경우 숙박업소에서 함),
국가코드 및 국가번호	UZ +998

■ 정치

- 정부 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7년, 연임제)
- 의회 구성 : 양원제(총 250석, 상원 100석, 하원 150석)
- 주요 인사
 - 대통령 :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2016~/ 3연임 중)
 - 상원의장 : 노르바예바(Tanzila Norbaeva, 2019.06~)
 - 하원의장 : 이스마일로프(Nuriddinjon Ismailov, 2015.01~)

8) 2023년 헌법 개정으로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총리 : 아리포프(Abdulla Aripov, 2016.12~)
- 외교장관 : 사이도프(Bakhtiyor Saidov, 2022.12~)

○ 주요 정부 기관

- 총리실 산하 국제문화센터(International Cultural Center)가 있으며, 각 민족(타지크, 고려인, 게르만 등)별로 존재/ 1991년 8월 31일에 독립을 선포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20여 소수민족 감독/관리 차원에서 소수민족들이 문화협회 조직 장려, 이들 문화협회가 우즈베키스탄 정부 기관인 소수민족문화부흥지원센터에 등록/ 현재 소수민족문화부흥지원센터는 국제문화센터로 이관⁹⁾
- 홈페이지 : <https://interkomitet.uz/en/culture-centers/6?nav=about>

■ 경제

- 미르지요예프 정부 출범(2016.12)이후 국가 경제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경제개방, 자유화 정책을 추진/ 우즈베크 경제는 최근 5% 상회하는 성장률 유지
- 현재 WTO 가입 추진 중/ 투자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 외환자유화, 경제특구 조성, 조세개혁 등 경제자유화 정책 적극 추진 중
- 현재 우즈베크 내에는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 10개 경제자유구역(FEZ)설립
 - ▶ 나보이, 안그렌, 지작, 워르구트, 기쥐두반, 코칸드, 하자라슈, 시르다리아, 나망간, 테르미즈 신설.
- 우즈베키스탄은 198개국과 무역 관계 체결, 교역액으로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대한민국 순/ 수출은 산업재, 식품, 기계류가 주, 특히 과일 및 채소 수출이 2023년에 176만 톤으로 대폭 증가/ 수입은 기계 및 운송 장비, 산업재, 화학품이 주도, 총 수입액은 381억 4,000만 달러(약 5조 930억 원)로 전년 대비 24.0% 증가¹⁰⁾
-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 광공업, 농업 비중이 크며, 농업 가운데 농작물업(면화 포함)이 47.5%, 축산업 48.5%로 이 둘을 합한 농업이 96.7% 차지¹¹⁾/ 부가가치

9)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Uzbekistan is a united multi-ethnic country" 2017.01.24., <https://president.uz/en/lists/view/198> (검색일:2024.05.23.).

10) KIEP. "우즈베키스탄, 2023년 대외무역 626억 달러로 급증" 2024.01.22.,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No=360675&mid=a1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tPage=1&pageCnt=10 (검색일:2024.05.25.)

11) KOTRA. "우즈베키스탄 산업구조" 2021.04.20., 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No=315525&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

높은 품목으로 전환이 핵심 목표

■ 역사

- 우즈베크 민족은 카자흐 유목집단에 비해 일찍이 중앙아시아 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정주, 농업 기반 전통 강함
- 6세기 중엽 돌궐 제국 성립 후 돌궐족 진출,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당 패배, 사라센 군이 승리함으로써 현 중앙아 남부 일대가 이슬람권으로 편입/ 13세기 초 몽골의 지배를 받았으나 14세기 무렵 몽골 칸의 세력 약화로 티무르 제국 시대 시작
- 오랜 세월 중앙아 지역에 거주하던 이란계, 투르크계 민족과 13세기 진출한 몽골계 민족의 융합으로 오늘날 우즈베크 민족이 형성되었으며, 1507년 샤이바니왕조 출현(현 우즈베크스탄 지역인 부하라, 히바, 코칸드 일대)
- 16세기 제정러시아의 아스트라칸 정복 후 중앙아 진출(현 카자흐스탄 일대) 본격화, 19세기 제정러시아의 남하 정책으로 현 우즈베크스탄 일대에 포진했던 부하라칸국, 히바 칸국, 코칸드 칸국 차례로 병합
-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발발 이후 1918년 투르크스탄(현재의 중앙아 우, 키, 타, 투 지역 일대) 자치공화국을 수립하였으나, 1924년 소련이 이를 민족 단위로 재편, 우즈베크스탄 공화국 선포
- 1991년 8월 31일 독립 선언 이후 이슬람 카리모프 공상단 제1서기를 직선을 통해 대통령 선출, 카리모프 대통령은 서거(2016.09)까지 재임

■ 종교 및 사회 문화¹²⁾

○ 종교

- 우즈베크스탄은 인구 가운데 무슬림이 다수 차지, 중앙아 5개국 중 종교적 색채가 강한 편/ 거리에서 히잡 착용 여성을 중앙아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목격 가능/ 헌법에 세속주의 국가 명시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종교공동체 숫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21년 종교법을 개정하며, 지역 수준에서 모스크, 교회 등 종교 시설과 중

[4&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2024.05.25.)

12) 중앙아시아 사회, 문화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지은(2022), 『변화하는 중앙아시아 사회와 문화』 서울: 다해 서적 참조.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명 동의자 수도 기존 100명의 절반인 50명으로 축소/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 종교적인 복식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 삭제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슬람 대학교 및 이슬람 역사 유적지의 보존을 위해 재정 지원/ 단, 이슬람 교육 기관에 대한 민간의 재정지원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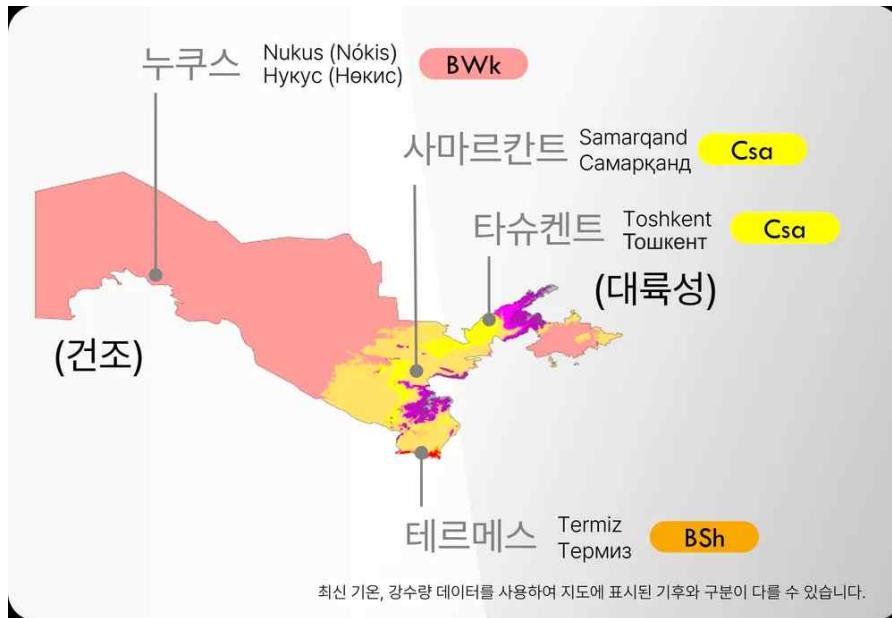
○ 사회 문화

- 우즈베키스탄은 정주 문화가 일찍 정착, 지역 연고에 기반한 공동체가 강력하게 형성/ 특히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지역 파벌 존재
- 가족 다음 중앙아시아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마할라(Mahalla)라는 이름으로 불림/ 현대 사회에서도 마할라 영향력은 여전히 지대/ 마할라 원로는 투표로 선출되며 공동체 유지가 우선 순위
- 연장자 존중 문화는 언어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존칭어 존재
- 우즈베크 인들은 웃어른에게 인사할 때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심장 부근)에 대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

■ 기후 및 지리

- 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이며, 적절한 수자원 등 농경/정주문화 발전 기반이 갖춰져 있어 고대부터 중앙아 지역 중심지이자 문명 발전의 근원지/ 오아시스 주변에 도시들이 형성/ 대륙성 기후 중에는 한랭 반건조기후(BSk)와 지중해성 기후(Csa)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도시들의 강수량이 500mm 안팎/ 따라서 사막을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생물 군계는 온대 초원 관목지
- 평균 기온은 (겨울)타슈켄트를 포함한 북부지역은 1 월 평균 -3 도°C, 남부지역은 +3 도°C 수준임. (여름) 북부지역은 7 월 평균 + 26 도°C이고, 남부지역은 +32 도°C 정도/ 단, 최근 기후 이변으로 폭한, 폭서가 빈번해지는 추세

그림 1 우즈베키스탄 기후대



- 동쪽의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지대를 제외하면 지형은 전반적으로 평평한 편/
우즈베키스탄 북부에 위치한 아랄해가 과거 소련의 면화 사업으로 인해 강물의 유입이
해마다 축소되며 아랄해 복구가 국가적 사안/ 이중내륙국

2. 중앙아시아 2개국 주요 도시 정보 및 산업

2.1. 카자흐스탄(아스타나, 알마티)

1) 아스타나(Astana) 시(市)

① 도시 기본 정보

- 현 카자흐스탄 수도, 시장(Akim)은 제니스 카슴베크(Jenis Qasymbek, 2022. 12-)
- 인구 : 127만 명(2024년 기준), 독립 후 건설된 신도시로 인프라 건설 및 이주 인구가 증가 추세, 알마티 시(市)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내 인구 2위 도시
 - 지난 10 년 아스타나 인구는 46% 급증, 2035년까지 2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물 공급 및 배수 문제, 안정적 전기 공급, 도로 상태 등 인프라 개선 시급¹³⁾
- 주요 산업: 금융, 부동산, 건설, 무역, 서비스업 등, 2024년 기준 서비스업이 80.6% 차지, 제조업 등 상품 생산 부문 12.6%, 2022년 글로벌 금융 센터 지수 순위에서 CIS 지역 선두권¹⁴⁾
-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중앙아시아 금융서비스 허브
- 아스타나-신도시 경제특구: 2001년 산업 개발 및 투자유치 목표로 설립
- 매년 제조업 및 건설업 성장: 아스타나 도시 개발로 인해 건설 부문이 크게 성장 중, 2024년 1-8월 사이 주택 공급 면적 약 244만㎡로 기존대비 4.2% 증가

② 주요 개발 분야 및 계획

- 산업 단지 개발
 - 아스타나에는 두 개의 주요 산업 단지가 있으며, 제2호 산업 단지는 2025년 가동 예정, 기계 제작, 건설, 목재 가공, 야금, 경공업, 화학 및 식품 산업, 제약, ICT, 기성 생산 시설 등 10개 주요 클러스터로 구분, 관세 및 세금 면제, 토지 무료 임

13) The Astana Times. "Kazakh Government Approves Five-Year Astana Development Plan" 2 0 2 4 . 0 2 . 2 8 . <https://astanatimes.com/2024/02/kazakh-government-approves-five-year-astana-development-plan/> (검색일:2024.09.21.)

14) "How did Astana and Almaty Rank on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https://qazmonitor.com/business/870/how-did-astana-and-almaty-rank-on-global-financial-centers-index>

대 등 특혜 제공 계획¹⁵⁾

○ 첨단 기술 및 ICT

-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등을 통해 금융 및 기술 융합 촉진 중, 스마트 시티 개념 도입하여 도시 내 ICT 산업 발전 지원

○ 2024-2028년 아스타나 종합 발전 계획¹⁶⁾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4-2028년 아스타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종합 발전 계획 승인
- 도시개발: 아스타나와 주변 40여 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총 1.13조 텡게(약 25억 달러) 투입, 교통인프라 확충, 물류 단지 설립, 환경 보호, 고용 창출 목표

○ 2035년 아스타나 기본 계획(General Plan of Astana until 2035)¹⁷⁾

- 아스타나의 사회, 주택, 교통, 에너지 인프라 발전 목표
- ▲164개 학교, 178개 유치원 및 93개 보건 시설 건설, ▲도로 및 도로망 길이 2,500km로 확충(기존 1,000km당) 계획, ▲ 대중교통 개발 및 고속도로 하중 감소 위한 5개 대형 교량 건설 등
- 투입 예산은 약 139억 달러, 이 중 주택 건설 95억 달러, 인프라 투자 분야 15억 달러 배당

③ 협력 유망 분야

○ 건설 및 부동산

- 2023년 아스타나 건설 부문 급격히 성장, 건설 활동의 규모는 7.5억 텡게를 기록하며 14.7%의 증가율¹⁸⁾

○ 수소 에너지

- 카자흐 정부는 재생 에너지 및 녹색 기술에 많은 관심 보유,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15) Kazinform. "Astana's No 2 industrial park to start operating in 2025" 2023.11.02., <https://en.inform.kz/news/astanas-no-2-industrial-park-to-start-operating-in-2025-2dfbd1/> (검색일:2024.09.20.)

16) The Astana Times. "Kazakh Government Approves Five-Year Astana Development Plan" 2024.02.04., <https://astanatimes.com/2024/02/kazakh-government-approves-five-year-astana-development-plan/> (검색일:2024.09.21.)

17) Azernews. "Kazakhstan Government approves General Plan of Astana until 2035" <https://www.azernews.az/region/220461.html> (검색일:2024.09.21.)

18) The Astana Times.. "Industrial Cooperation Emerges as New Trend in Central Asian Collaboration" 2023.09.16., <https://astanatimes.com/2023/09/industrial-cooperation-emerges-as-new-trend-in-central-asian-collaboration/> (검색일: 2024.09.18.)

관련 산업 발전 희망, 특히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 외국 기업과의 협력
주력(중국 외 기업과 협력 모색)

2) 알마티시

① 도시 기본 정보

- 구(舊) 수도, 현 시장(Akim)은 예르볼랏 도사예프(Erbolat Dosaev, 2022. 01~)
- 인구: 2024년 기준 2,249,500명(인구 규모로 제 1의 도시)
- 주요 산업: 식품, 의약품, 일반기계, 물류업 등 상대적 산업 다각화 도시
-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제 1의 도시이자 역사적 중심지로, 1997년 아스타나로 천도 전까지 카자흐스탄 수도, 경제 중심지로 주요 금융기관, 국제기구들이 대거 소재, 대도시인 만큼 자원 소비량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환경 문제로 부각
- 알마티 시가 소재한 카자흐스탄 남동부는 산업과 인구 밀집 지역, 그러나 지진대(예상 지진 최대 규모 6.0~8.3(진도 IO=8~10)에 위치, 지진 피해 다수 발생
- 알마티 시 주요 산업은 금융업: 중앙아시아 내 가장 큰 은행인 할류크(Halyk) 은행, 카스피(Kaspi) 은행 및 카자흐스탄 증권 거래소 소재,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카스피 은행은 한국의 “카카오 뱅크”처럼 QR 결제 서비스 제공, 코로나 이후 인구 대부분이 현금 결제보다는 카스피 은행 QR 코드 서비스 사용(재래시장에서도 통용)
- 국외 자매도시로는 미국의 투스칸(Tuscon), 프랑스의 렌(Rennes), 한국의 대구, 러시아의 모스크바(Moscow),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키르기스스탄의 비쉬켄(Bishkek), 벨라루스의 민스크(Minsk),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Vilnius), 터키의 이스탄불(Istanbul), 라트비아의 리가(Riga), 이스라엘의 텔아비브(Tel-Aviv),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 불가리아의 바르나(Varna) 등

② 주요 개발 분야 및 계획

- 알마티 시 환경 개선 시급: 교통 규제, 전기 자동차 인프라 개발 중¹⁹⁾
 - 2025년 말까지 ▲대중교통 부문에 환경 기준 도입 예정, ▲전기 자동차 구매 수요 향상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고품질 식수 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설정

19) The Astana Times. “President Tokayev Outlines Key Areas to Develop Almaty” 2023.08.19., <https://astanatimes.com/2023/08/president-tokayev-outlines-key-areas-to-develop-almaty/> (검색일: 2024.09.24.)

■ 《알마티 2040 마스터플랜》²⁰⁾

- 알마티 도심의 밀집도 분산을 목적으로 외곽에 5개의 위성도시 건설, 환경 친화적 교통 시스템 확장 및 도시 녹지 조성, 생태적 문제 해결 시도
- 현재 인구 200만 명이 넘으나, 여전히 일부 지구에는 사회, 교통 인프라 미보유 상황, 학교, 병원, 노후 건축 현대화, 수도 인프라 추가 건설 등 추진 중

○ 교통 인프라 현대화

- 신규 노선 구축 계획: ▲2030년까지 45km 경전철, 5km 지하철 노선, ▲2040년까지 76km 경전철, 57km 고속버스, 8km 지하철 노선 등 구축 예정
- 2025~2030년 개인 및 공공 전기 자동차 충전소 조성 예정

○ 내진 설계 강화와 지진 대비 건설 제한

- 지진 활동 구역의 건물 건설은 6층 이하로 제한

■ 《스마트 알마티 2020-2025 전략》²¹⁾

- 상기 전략 추진을 위해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 도입,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 친화적 도시 건설 목표
- ▲ 기업, 과학 및 국가 간 연계를 통한 IT 시티, ▲ 디지털 실�크로드 구현, ▲인적 자원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IT 기술 전수, ▲ 인터넷 품질과 접근성 향상

③ 협력 유망 분야

■ 교통 인프라

- 알마티 시는 대기 환경 문제를 개선코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전기차 사용 장려(전기차 충전소 확충 등)

■ 건설

- 인구 증가로 학교, 병원 등 추가 건설 예정, 신규 건축물 내진 설계 필수, 수자원 인프라 확충
- 특히, 식수 품질 개선을 위해 식수 인프라 및 물 및 위생 시설 추가 건설 계획

20) The Astana Times. “New Master Plan for Almaty to Decentralize City and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2023.05.27., <https://astanatimes.com/2023/05/new-master-plan-for-almaty-to-decentralize-city-and-address-environmental-issues/> (검색일 : 2024.09.25.)

21) https://digital-almaty.kz/sites/default/files/140720_cifrovizaciya_almaty_strategiya_eng.pdf

2.2. 우즈베키스탄

1) 타슈켄트(Tashkent) 시(市)

① 도시 기본 정보

- 시장(Hokim): 샤브캣 우미르자코프(Shavkat Umirzakov, 2024. 04~)
- 우즈베키스탄 수도, 도시 내 가장 많은 산업체 보유
- 인구: 약 300만 명(2024년 기준), 중앙아시아 제 1의 인구 규모
- 주요 산업: 건설업, 제조업(섬유, 자동차, 전자제품), 서비스업, 건설 및 인프라, 금융 등
 - 최근 타슈켄트시에서 건설, 서비스업 활성화, 2023년 약 29억 달러 규모 건설 프로젝트 완료, 수도 내 인프라 개발 가속화²²⁾
 - 중앙아시아 IT 허브 도시 발전 계획,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 도시 재개발, 인프라 현대화 진행: 약 500ha의 토지 내 노후화된 인프라, 안전 위험성이 있는 건물 재개발 중²³⁾
- 경제, 산업 중심지: 시 지역총생산(GRDP) 147억 달러, 2023년 기준 약 11,780개 기업 보유
 - 최근 투자 집중, 우즈베키스탄 투자 허브로 부상²⁴⁾
- ‘타슈켄트 시티(Tashkent City)’
 - 우즈베키스탄 중소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설립,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모티브로 구축, 나보이, 올마조르, 카리모바, 푸르카타 거리 사이에 위치한 해당 센터 면적은 80 헥타르에 달하며 쇼핑센터, 호텔, 사무실, 회의장, 전시장, 현대식 고급 주거 시설, 식당, 인

22) DARYO. “Analyzing Uzbekistan's regional development: insights from 2023 socio-economic data”
<https://daryo.uz/en/2024/02/19/analyzing-uzbekistans-regional-development-insights-from-2023-socio-economic-data> (검색일:2024.09.25.)

23) DARYO. “‘We've got 500 hectares of land in Tashkent up for renovation,’ - City Mayor, Shavkat Umurzakov”
<https://daryo.uz/en/2024/02/28/weve-got-500-hectares-of-land-in-tashkent-up-for-renovation-city-mayor-shavkat-umurzakov> (검색일:2024.09.25.)

24) DARYO. “Analyzing Uzbekistan's regional development: insights from 2023 socio-economic data”
<https://daryo.uz/en/2024/02/19/analyzing-uzbekistans-regional-development-insights-from-2023-socio-economic-data> (검색일:2024.09.25.)

공 호수, 놀이 공간 및 기타 부대 시설 등 보유

■ 관광 촉진 정책

-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비자 기준 완화, 관광 부문 활성화에 주력 중, 가장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도시²⁵⁾

② 주요 개발 분야 및 계획

■ 2045년 타슈켄트 시(市) 기본 계획²⁶⁾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타슈켄트 수도 외관 보존 및 신규 건설 프로젝트 도시 외곽에서 실시하도록 지시
- 교통 체증 문제 심각: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시민 누구나 집에서 최소 15분 거리 내 대중교통 접근 가능 목표
- 신도시 건설 계획(타슈켄트시의 동쪽에 건설, 50만 명 수용 가능). 신도시와 수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건설 계획
- 타슈켄트 시 현재 녹지는 7,000헥타르 정도, 이를 녹지 벨트로 규정하는 동시에 녹지 면적 25,000 ha 로 증대 계획
- 잦은 단전 문제: 수도 내 전기 공급 확충 계획²⁷⁾
- 60만 명 수용 가능한 주거 건물(아파트) 건축, 30개 학교, 20개 유치원, 종합 병원, 5개 가족 병원 건설²⁸⁾
- 교통 시스템 전면 개편: 타슈켄트 시내버스는 전기버스로만 구성, 자전거 도로 구축, 10만 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건설, 모든 전기, 통신망, 가스 및 수도 관 지하화 계획²⁹⁾

25) Buisness express. “Uzbekistan doubles the number of tourists in 2018” 2018.11.23., <https://brussels-express.eu/uzbekistan-doubles-the-number-of-tourists-in-2018/> (검색일: 2024.09.26.)

26)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이트. “Draft Master Plan of Tashkent City 2045 Considered” 2022.10.18., <https://www.president.uz/en/lists/view/5621> (검색일:2024.09.25.)

27) KUN UZ. “Shavkat Mirziyoyev lays foundation stone for construction of new Tashkent city” <https://kun.uz/en/news/2023/03/18/shavkat-mirziyoyev-lays-foundation-stone-for-construction-of-new-tashkent-city> (검색일:2024.09.25.)

28) KUN UZ. “Shavkat Mirziyoyev lays foundation stone for construction of new Tashkent city” <https://kun.uz/en/news/2023/03/18/shavkat-mirziyoyev-lays-foundation-stone-for-construction-of-new-tashkent-city> (검색일:2024.09.25.)

29) KUN UZ. “Shavkat Mirziyoyev lays foundation stone for construction of new Tashkent city” <https://kun.uz/en/news/2023/03/18/shavkat-mirziyoyev-lays-foundation-stone-for-construction-of-new-tashkent-city> (검색일:2024.09.25.)

■ 타슈켄트시 국제혁신 건설단지 개발 및 스마트시티 구축³⁰⁾

- 타슈켄트시 거주이전 조건 완화로 최근 인구 유입 급증
- 외곽의 2개 지구가 타슈켄트 시로 편입 후 신도시로 개발 계획, 해당 구역은 국제 혁신 단지 건설과 현대식 위성도시가 주제
- 대통령령에 따라 양기카웃 및 벡테미르 지구의 총 400헥타르 규모가 스마트시티로 전환 예정, 여러 ICT 기술과 연계 가능성 높음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스마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사업³¹⁾

- 타슈켄트시 인구는 1980년대 180만명, 2022년 약 260만명으로 45% 급증, 개인교통 수단 의존도가 높아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 수 급격 증가 예상
- 타슈켄트시의 교통인프라 노후화 및 효율적인 운영기술의 부족은 도시교통 발전에 걸림돌
- 지속가능한 도시 및 경제발전을 위해 급변하는 타슈켄트시 교통상황과 전세계적인 추세(그린/스마트 교통)를 고려한 타슈켄트시의 교통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
 - 한국 국토교통부 양자무상 ODA 사업 중 하나로 진행 중

③ 협력 유망 분야

■ 관광

- 역사적 도시: 타슈켄트시는 우즈베키스탄의 중심지이자 중앙아시아 고대 도시 중 하나, 최근 중앙아 이웃국가 관광객 유입이 급증
- 높은 관광 잠재력: 도시 내에서는 구시가지가 존재하며,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주거용 주택이 모여있는 마을이 남아 있음, 구시가지에는 쿠크다쉬 마드라사(이슬람 건축)와 같은 중세 건축 기념물이 있으며, 하스트 이맘(이슬람) 등 소재함, 구시가자 대부분 건축 기념물은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에 건설, 특히 초르수(Chorsu) 시장, 모스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쿠란(7세기 경 추측) 등 보유하여 이슬람 성지로도 부상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적극적 관광 활성화 정책

■ 건설업

30) SMART CITY KOREA. “타슈켄트시 국제혁신건설단지 개발 및 스마트시티 구축” <https://smartcity.go.kr/2022/03/30/%ED%83%80%EC%8A%88%EC%BC%84%ED%8A%B8%EC%8B%9C-%EA%B5%AD%EC%A0%9C%ED%98%81%EC%8B%A0%EA%B1%B4%EC%84%A4%EB%8B%A8%EC%A7%80-%EA%B0%9C%EB%B0%9C-%EB%B0%8F-%EC%8A%A4%EB%A7%88%ED%8A%B8%EC%8B%9C%ED%8B%B0/> (검색일:2024.09.24.)

31) 한국교통연구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스마트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착수보고” https://www.koti.re.kr/user/bbs/btriprptView.do?bbs_no=58483 (검색일:2024.09.25.)

- 타슈켄트 외곽으로 도시 확장, 타슈켄트 시내 오래된 전통 구옥이 모여있는 마할라 재건축 진행 중
- 환경 개선
 - 전기차 장려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진행, 도심 녹지화 관심

3. 경상남도 협력 제언

3.1. 카자흐스탄

1) 아스타나

■ 건설 및 부동산

- 현재 아스타나시는 건설업, 금융 허브로 부상 중,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 및 러시아 등에서 아스타나시로의 인구 유입 증가 중
- 카자흐 정부 주택 건설 지원: 도심 제외 주택수가 적어 인구유입으로 주택난 심각
- 다수의 고층 신축건물: 경남도 승강기 산업과 협력 가능
- 아스타나의 눈보라 및 혹독한 기후로 승강기 운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 기술력을 갖춘 경남도 승강기 산업체 경쟁력 있음

■ 수소 에너지 협력

- 카자흐 정부는 재생 에너지 및 녹색 기술에 많은 관심,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 계획 보유
-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전환율은 다소 저조
- 경상남도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및 수소트램, 수소충전소 등 수소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업장 구축,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가능
 - 로만시스 (주)- 디젤 전기기관차, 전동차, 수소트램 등 다양한 철도차량을 제조할 수 있는 사업장과 자체 연구개발센터
 - 범한퓨얼셀 (주) - 군수용 연료전지 사업을 기반으로 건물용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등 수소 관련 다양한 사업
 - 범한자동차 (주) - 전기버스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버스의 수소 전기차량 개발 및 양산, 배터리팩 사업화, 충전기 사업 확대
-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에너지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2023년 한국 수소산업협회와 카자흐스탄 투자청이 수소타운 설립 MOU 체결³²⁾

32) 가스일보. “한국수소산업협회, 카자흐스탄과 수소타운 설립 MOU 체결”
<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181> (검색일:2024.09.25.)

2) 알마티

■ 교통 인프라

- 알마티시는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경전철, 지하철, 고속버스 노선 건설 계획
-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전기차 사용 장려 정책: 환경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 희망, 전기 자동차 충전소 확충 필요
- 경상남도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통해 디젤 전기기관차, 전동차 수소트램 등 다양한 철도차량을 제조할 수 있는 사업장과 자체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여 해외 수출 시장 확보 모색
- 교통 인프라 현대화에 따른 전기 자동차 및 전기기관차 등에서의 협력 가능

■ 승강기 건설

- 인구 증가, 학교, 병원 등 건축 + 내진 설계 필수
- 경남도 내에는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인 거창 승강기 밸리가 있으며 동 밸리에서는 재난 안전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사업 추진³³⁾ 사례 등을 토대로 승강기 협력 제안
- 알마티시 구옥 현대화, 인프라 구축 시 승강기 협력 다수 발생 예상
- 특히 현재 카자흐스탄 내 신축 건물을 제외한 구옥의 경우 승강기가 없거나, 소련 시기 건설된 승강기로 노후화되어 있기에 승강기 수요 큼

■ 수자원 인프라

- 알마티 시에서는 고품질 식수 인프라 구축, 물 및 위생 시설 건설 계획
- 경남도는 물 관련 기업 다수 소재, 상하수도 보급률이 높음³⁴⁾
 - 8개 시와 10개 군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는 약 330만 명으로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94.4%와 91.0%로 도서산간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보급이 거의 완료 상태
 - 경남도에는 약 1,368개 물산업 관련 기업 소재, 관련 기업에 약 34,774명 종사, 경기 및 서울 다음 순위로 산업(건설업, 제조업, 운영 및 정화업 순) 발전
 - 물산업 관련 인력양성기관인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교육 인프라 완비

33)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https://www.geochang.go.kr/business/Index.do?c=BS0501000000>
(검색일: 2024.09.23.)

34) “경상남도 물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https://www.jksee.or.kr/journal/view.php?viewtype=pubreader&number=4332>
(검색일: 2024.09.25.)

- 따라서 수자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상하수도 사업 협력 및 물관리 인력 초청 연수 등의 협력 가능

3.2. 우즈베키스탄

1) 타슈켄트

■ 전통과 연계된 관광 협력

- 경상남도 관광프로그램 수출
 - 경남도의 밀양 근대한옥탐방길³⁵⁾, 통영 청마거리³⁶⁾, 거창 황산전통한옥마을³⁷⁾, 남사예담촌 등 전통을 보전하고 체험하는 관광 프로그램 수출
 - 거창 황산전통한옥마을(조선시대 한옥 보존 및 관광 마을 조성), 남사예담촌(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 1호), 수백 년된 한옥 및 옛 정취 보존 및 전통 체험(한복체험, 전통 혼례체험, 약초주머니만들기, 자연염색체험, 족욕체험, 전래놀이 등)의 형태를 타슈켄트 구도심이나 전통가옥이 모여있는 마할라(mahalla)에 수출, 관광정책과 연계 가능³⁸⁾
- 타슈켄트시는 우즈베키스탄의 중심지이자 중앙아시아 고대 실크로드 도시 중 하나로 구시가지 존재, 최근 관광객 유입 급증, 그러나 지나친 건설붐으로 전통 보존보다는 재건축 및 신도식 건설에 주력 중
- 경상남도에는 전통 보존 및 전통을 활용한 관광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바, 비슷한 잠재력을 가진 타슈켄트시에 협력 사업으로 제안 가능
- 아직 중앙아 도시들은 전통을 보존해야한다는 의식보다는 개발, 발전, 현대화에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 그러나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경험 공유 필요
- 해당 협력은 전통마을보존에 대한 ODA 사업화 가능

■ 건설업

-
- 35) 경남관광 길잡이. “밀양 근대한옥탐방길.”
https://tour.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9403010004006 (검색일: 2024.09.21.)
- 36) 경남관광 길잡이. “통영 청마거리를 건다.”
https://tour.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9403010004010 (검색일: 2024.09.21.)
- 37) 거창 문화관광. “황산전통한옥마을”
<https://www.geochang.go.kr/tour/tourcontent/sights/major/View.do?id=TL0001671&pageCd=TU0101000000&siteGubun=tour> (검색일: 2024.09.21.)
- 38) 경남 관광 길잡이. “남사예담촌”
https://tour.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9402012010000 (검색일: 2024.09.24.)

- 타슈켄트 시내에는 재건축, 근교는 신도시 건설 중, 증가하는 인구 수용 및 도심 내 혼잡 문제 시급
- 경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³⁹⁾ 타슈켄트 시 노후화 주택 재개발 계획 등에 따른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제안 가능

■ 친환경 교통 인프라 협력

- 전기차 장려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타슈켄트 내 녹지공간 구축 계획
- 경남도 내에는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배터리 등(범한자동차(주) - 전기버스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버스의 수소 전기차량 개발 및 양산, 배터리팩 사업화, 충전기 사업 확대)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들이 다수 소재, 따라서 전기차량, 전기버스 등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협력 사업으로 제안 가능

■ 도심 환경 개선

- 도시 내 녹지 공간 조성: 경남도 도시숲, 녹색휴식공간 정책 수출, 주민 참여형 녹지공간 조성 등

끝.

39) 경남일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힘 모으자”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742> (검색일:2024.09.25.)

부록. 중앙아시아 2개국 국제교류 현황

1. 카자흐스탄 국제교류 현황

- 2020~2030년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⁴⁰⁾의 주요 지향점은 경제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카자흐스탄 위상 제고,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국으로써의 카자흐스탄 입지 강화
 - 친(親) 러시아 국가, 동시에 균형/실용외교가 핵심 기조⁴¹⁾
 -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적극적, 독립국가연합(CIS), 상하이협력기구(SCO),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투르크협의회, 이슬람 협력기구(OIC) 등에 가입
- 주요 국가와의 국제교류
 - 러시아
 - 러시아 우호국이나,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중립적인 태도 모색/ 최근 대 러 제재로 인하여 많은 러시아 기업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 국내 러시아 기업 수 4,000개로 폭증, 상당수가 IT 업체/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이 대 러시아 우회 노선으로 부상하자 경제적 이득 창출, 러시아 에너지가 EU로 수출하지 못하자 카자흐스탄 산 에너지가 대안으로 부상, 최근 독일로 향하는 에너지 수출이 증가 추세.⁴²⁾
 - 중국
 -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중앙아시아 거점/ 중국 서북 지역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도로망과 철도 네트워크들이 모두 카자흐스탄 경유/ 중국의 자본, 기술과 카자흐스탄의 노동력, 시장과 결합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과 중국의 해외 시장 확보 및 참여 기업들의 이윤 증대⁴³⁾

40) 카자흐스탄 외교부 사이트 .

https://www.akorda.kz/en/legal_acts/decrees/on-the-concept-of-the-foreign-policy-of-the-republic-of-kazakhstan-for-2020-2030 (검색일:2022.10.17.)

41) Global Post. “Kazakhstan delivers humanitarian aid to Ukraine” 2015.01.01., <https://web.archive.org/web/20150205230451/https://www.globalpost.com/dispatch/news/agency-efe/150111/kazakhstan-delivers-humanitarian-aid-ukraine> (검색일:2024.05.20.)

42) KIEP.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23.02.24., https://www.kiep.go.kr/board.es?mid=a10509030000&bid=0033&list_no=17198&act=view (검색일:2024.05.20.)

- 2023년 카-중 교역은 러시아를 넘어섰으며, 총 교역량은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이탈리아, 한국, 튀르키예 순

○ EU

- 카자흐스탄의 대 EU 정책은 전방위외교 전략의 핵심 목표인 외교 주권 강화, 외교 및 경제 협력파트너 다각화의 실체화/실현에 있음⁴⁴⁾/ 2015년 카자흐-EU 강화된 협력파트너십(EPCA)체결/ 2019년 6월, 높은 수준의 EU-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플랫폼 출범

○ 미국

- 2023년 미국-카자흐스탄의 제 5차 전략적 파트너십 대화(ESPD에서는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PGI) 체결⁴⁵⁾ 미국과의 관계는 중앙아 5개국과의 다자회담 형식인 C5+1 형태로 진행

■ 기타 국가와의 국제교류

- 2022 러-우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은 중동 지역 국가 및 중앙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 확대
 - 2024년, 카자흐스탄-카타르 176억 달러 규모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시행⁴⁶⁾
 - UAE 와 에너지(풍력) 협력 확대 협약 체결⁴⁷⁾
 - 중앙아 5개국과는 2018년부터 매년 다자정상회담 실시, C5+1 형태로 미국, 한국, EU 등과 교류 중

43) 조정원. “중국-카자흐스탄 산업 에너지 협력 현황과 문제점” 2018.12.12.,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57273&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1¤tPage=9&pageCnt=10 (검색일:2024.05.20.)

44) 이지은. (2023). 카자흐스탄의 對 EU 정책: 전방위외교와 추진 동력. 슬라브研究, 39(3), 1-30.

45) THE DIPLOMAT. “Kazakhstan-US Convene Enhanced Strategic Partnership Dialogue in Astana” 2023.11.09., <https://thedi diplomat.com/2023/11/kazakhstan-us-convene-enhanced-strategic-partnership-dialogue-in-astana/> (검색일:2024.05.23.)

46) The Astana Times. “Kazakhstan, Qatar Start Implement Investment Projects Worth \$17.6 Billion” 2024.03.26., <https://astanatimes.com/2024/03/kazakhstan-qatar-start-implement-investment-projects-worth-17-6-billion/> (검색:2024.05.24.)

47) MASDAR. “UAE and Kazakhstan sign landmark agreements to develop 1GW of renewables capacity” 2023.12.02., <https://masdar.ae/en/news/newsroom/uae-and-kazakhstan-sign-landmark-agreements> (검색일:2024.05.23.)

■ 한국과의 교류

- 1992년 1월 28일 한국-카자흐스탄 수교,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수차례의 정상외교를 포함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호적인 관계 유지⁴⁸⁾
- 1993년 7월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개설, 1995년 4월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개소 /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1위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
- 양국의 인적교류는 74,000명(2019년 기준)에 달하며, 매년 8만명 정도 증가 추세
- 지자체별 교류 협력 다수 진행
 - 서울시-아스타나시(자매교류 2004) : 행정교류 및 인적교류, 2005년 고려인동포 모국 방문단 지원(40명)
 - 동카자흐스탄주-경상북도(2008 우호교류) : 민간단체 교류, 2017년 한국 참정용사,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초청
 - 동카자흐스탄주-강원도(2011 우호교류) : 기술 및 학술교류(의료단 파견 및 초청 연수), 인적 교류(공무원 및 대학생 연수), 강원도-동카자흐스탄주 비즈니스 포럼(2012)
 - 아스타나시 알마티 구-서울시 성동구(2023 우호교류) : 2023 유라시아시민대장정 알마티 방문, 알마티 대표단 부산 방문(알마티 시의회 의장, 의원단, 시청 직원, 기업인 등) 등
 - 알마티시 메데우 구-서울시 중구(1999 우호교류) : 경제인 내방 및 소규모 공장시찰(1999)
 - 알마티주-부산광역시(2022 우호교류): 아시아 창업엑스포 FLY ASIA 2022 개최(2022)
 - 알마티주-경기도(2008 우호교류) :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해외의료사업설명회(2009),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2012) 등
 - 알마티주 알마티 시-대구광역시(1990 자매교류) : 안경 산업, 2023 중앙아시아 치과기자재전시회 참가(2023).2023 제6회 아태안타에이징 컨퍼런스(APAAC)에 알마티 참석(2023) 등
 - 알마티주 일리 군-전라남도 보성군(2014 우호교류) : 문화예술 교류
 - 제티수주 카라탈 군-강원도 정선군(2014 우호교류) : 문화예술교류
 - 카라간다 주-울산광역시(2010 우호교류) : 무역,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서 체결(2010)
 - 카라간다 주-서울특별시 송파구(1994 자매교류) : 고려인협회 민속예술품 지원, 민속예술단 파견 등
 - 크즐오르다 주-대전광역시(2023 자매교류)

48) EMERICs. “한-카자흐스탄 관계” 2023.06.30., https://www.emerics.org:446/nationInfoView.es?systemcode=04&mid=a10500000000&brdctsn=349595&nation_idx=28&search_area=4 (검색일:2024.05.23.)

2. 우즈베키스탄 국제교류 현황

- 1991년 독립 이후, 카리모프 통치 시기(1991-2016) 다소 폐쇄적인 외교정책 실시했으나, 현 대통령 미르지요예프(Mirziyoyev) 집권(2017~현재) 직후 ‘우즈베키스탄 2014-2021년 5개년 발전전략(Uzbekistan Development Strategy for 2017-2021)’⁴⁹⁾을 공표, 국가발전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 추진⁵⁰⁾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와 협력 강화, 해외투자 유치와 교역 활성화를 위해 WTO 가입 절차 진행 및 한국, 유럽 등 양자 무역협정 체결 계획⁵¹⁾
 - 2018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갈등 해소 및 협력 강화에 적극적 행보
- 주요 국가와의 국제교류
 - 러시아
 - 카자흐에 비해 러시아로부터 독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 미르지요예프 취임 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러시아와의 대외관계를 적극적으로 향상, 특히 경제 부문에서 러시아와의 교류 활성화
 - 중국
 - 우즈베키스탄의 대중 정책은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실리외교 차원에서 對중국 실질협력 확대 지속에 주안점⁵²⁾
 - 경제적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운송, 에너지, 산업 협력을 적극 추진/ 운송 부문에서는 캅치 터널 건설과 중국에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에 협력⁵³⁾

49)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2017년 2월 △국가·사회 시스템 확립 △법치주의 보장 및 사법제도 개혁 △경제 발전 및 자유화 △사회부문 발전 △기타 외교·안보정책 등 우선 개혁과제가 포함된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을 채택하였음.

50) KIEP,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8. 12.30.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40000&bid=0005&act=view&list_no=3599&cg_code=

51)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2021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01.19.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list_no=3558&act=view

52) 2019 외교부 우즈베키스탄 개황. [우즈베키스탄 개황\(2019.04\)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53) KIEP. 2018.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p. 157.

■ 한국과의 교류

- 1992년 한-우 외교관계를 수립, 동년 타슈켄트에 한국교육원 개설
- 2006년 한-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2019년 한-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4대 교역 상대국, 자동차 부품 및 산업 기계의 주요 공급국⁵⁴⁾
- 2024년 기준, 한국 내 외국인(고려인 포함)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출신은 5위(총 8만 7698명)⁵⁵⁾, 국내 우즈베키스탄 출신 커뮤니티 빠르게 증가 중
- 지자체별 교류 협력
 - 나망간 주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여군 스마트팜단지 등 첨단농업분야 시찰 및 우호협력 협정(우호 교류)
 - 나망간 주 나망간 시 - 경기도 성남시 : 나망간 시 의원(고려문화협회회장) 방한(우호 교류)
 - 나망간 주 나망간 시 - 경상북도 경산시 : 경산시-나망간시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및 현지시찰(우호 교류)
 - 부하라 주 - 대구광역시 :대구-부하라 우호협력도시 체결, 대구국제대학생캠프에 부하라 대학생 참여 및 한국문화체험(우호 교류)
 - 부하라 주 부하라 시 - 강원도 강릉시 : 문화예술교류(우호 교류)
 - 사마르칸트 주 사마르칸트 시 - 부산광역시 :2023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사마르칸트 방문(경제교류)(우호 교류)
 - 사마르칸트 주 사마르칸트 시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주-사마르칸트『시장 온라인 회의』 추진 실무자 회의, 글로벌학술네트워크 ‘헤리티지 아카데미 로드(스텝로드 지구)’ 구축(우호 교류)
 - 시르다리야 주 -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경제사절단 방우(우호 교류)
 - 타슈켄트 시 셀르젤리구 - 전라남도 나주시 : 우즈베키스탄 전기전자 산업부 장관 내방 및 하우스 시설 단지 교류(우호 교류)
 - 타슈켄트 주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 우호교류단 타슈켄트 방문(우호 교류)

54) EMERiCs. “[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지역 대외 무역 동향과 발전: 우즈베키스탄 사례”
2 0 2 3 . 1 2 . 0 8 .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57599&mid=a10200000000&&search_opti 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2024.05.23.)

55) KOCIS. “국내 외국인 251만명, 다문화사회 진입 눈앞”2024.01.17.,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7344> (검색일:2024.05.24.)

- 타슈켄트 주 - 경상북도 본청 : 한국전쟁 참전용사.독립운동유공자 후손 초청(우호 교류)
- 타슈켄트 주 양기울 시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산삼엑스포 우즈베키스탄의 날 행사(우호 교류)
- 타슈켄트 주 타슈켄트 시 - 서울시: 교통정책 초청연수, 타슈켄트시 대중교통 발전 전략 수립 컨설팅, CAC Global Summit 2020 도시정부 시장회의 등(자매 교류)
- 페르가나 주 - 경기도 용인시 : 나브로즈 축제 참가 및 용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 협의회-페르가나주 여성가족국 간 업무협약 체결, 페르가나주 경제대표단-용인시 기업체 간담회 개최 등 (자매 교류)
- 페르가나 주 - 인천시 :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지사 방한 등(우호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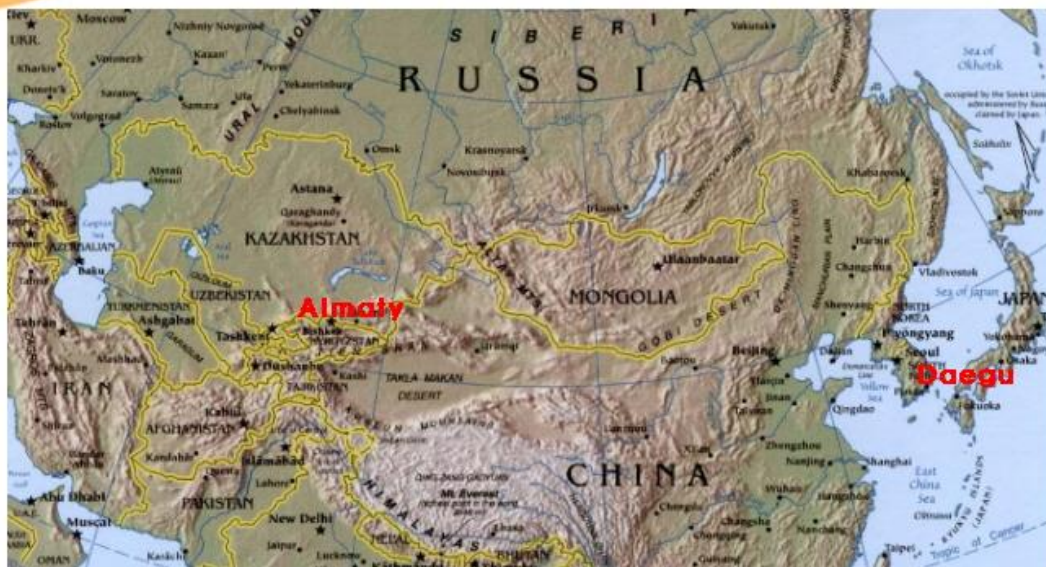
CIS 국제교류 멘토링

- 대구광역시 교류 사례 -

2024.10.2.(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란

대구-알마티(Almaty)



대구 - 알마티 교류



대구 - 알마티 교류

- 자매결연 체결: 1990.11.26.
※ 한국-카자흐스탄 수교: 1992년
- 주요교류 분야
 - ✓의료
 - ✓문화예술
 - ✓인적 교류
 - ✓경제

대구 - 알마티 교류

- 의료 분야 교류

- ✓ 계명대 동산의료원 선교모임에서 의료봉사 시작(1995년부터 매년)

알생모(알마티를 사랑하는 모임) → 한국-카자흐스탄협회

- ✓ 알마티 동산병원 오픈(현지 병원장)

- ✓ 대구 메디컬 서비스 센터 오픈(2009년)

- ✓ U-Health Center 오픈(2012)

대구 - 알마티 교류



대구 - 알마티 교류

- 의료 부문 교류
 - ✓매년 무료 의료봉사
 - ✓심장병 등 환자(4) 무료 수술 제공
 - ✓알마티 의료인 연수 제공
 - ✓센터와 알마티 응급 병원 간 협업

대구 - 알마티 교류

- 문화예술부문 교류
 - ✓상호 축제 참가
 - 알마티의 날 ('04, '07, '09)
 -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99, '01, '08, '09, '14, '16)
 - ✓2010 한국에서의 카자흐스탄의 해
 - ✓2011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
 - ✓알마티악기박물관에 한국 전통악기 기증
 - ✓뮤지컬, 연극, 합창대회 등 참석
 -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로 교류

알마티의 날(Day of Almaty)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2010 한국에서의 알마티의 날



2010 한국에서의 카자흐스탄의 해



2011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



2011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



2011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의 해



대구 - 알마티 교류

- 인적 교류
 - ✓대구국제교류포럼 참석(2007)
 - ✓상호 축제 참여시 대표단 참석
 - ✓무역사절단 파견시 알마티 시청 등 방문
 - ✓의료봉사단 파견시 알마티 시청 등 방문

대구 - 알마티 교류

- 경제 부문
 - ✓ 무역사절단 파견(2009부터)
 - ✓ KOTRA 알마티 및 알마티시청과 협력
 - ✓ 10여 개 중소기업 참가
 - ✓ 종합품목

대구 무역 사절단



대구 - 알마티 교류

- 기타 부문
 - ✓고려인 노인대학 고국방문단 대구방문(한복 기증)
 - ✓알파라비국립대에 한국어 교재 제공
 - ✓대구국제대학생캠프에 알마티 학생(1) 참석
 - ✓기능봉사단 봉사(미용, 수선/수리, 요리 등)

대구-부하라주

- 우호도시 체결: 2022.8.26.
- 교류분야
 - 경제발전, 개발협력, 교육, 농업, 도시식품, 문화, 관광 등

대구-부하라주 교류

추진 경위 : 국제관계대사 추천으로 CIS지역 교류 다변화 추진('21)

추진 방식 :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방문 및 협조 요청

- 우즈베키스탄대사 면담 및 도시 추천 및 연결 요청
- 섬유/패션을 매개로 부하라주 추천 받음
- 대사관에서 3자간 영상회의 개최(2~3회)
- 우호도시 협정서(국문-영문-우즈베크어) 안 조율
- 코로나로 인해 협정서 서명 일시 조율 지연(우편/영상 방식 검토)
- 부하라주 부지사 일행 대구 방문('22)으로 협정서 체결



대구-부하라주

대구-부하라주 온라인 우호협력 체결계획 보고

2021. 9. 28.(화)

국제통상과장(3250)

신북방지역으로의 자매우호도시 다변화 추진 사업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주와 10월 말 온라인으로 우호협력협정서를 체결하고자 함

■ 체결 개요

- 체결일시 : 10.28(목) 17시 또는 11.8(월) 16시
- 체결인 : 시장님 - 보티르 자리포프 부하라주지사
- ※ 우리측 배석: 국제관계대사, 일자리투자국장, 한-우즈베크협회장 등
- 체결장소 :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2층)
- 체결방식 : 양 시장/주지사의 국·영·우즈베크어(1부씩) 서명본을 사전 우편 교환 후 온라인 체결식에서 나머지 1부에 서명
- 기대효과 : 로봇, 섬유, 물, 자동차, 보건 의료 분야 교류 증대

■ 추진 경위

- 진기훈국제관계대사의 주한우즈베크대사 면담 및 교류도시 추천 요청(3.17)
- 섬유(목화)산업 발달, 자동차, 물산업, 보건 의료 분야 협력이 필요하고 한국어교육 열풍 등으로 부하라주를 추천
- 시장님 명의 우호협력 제안 서신 발송(4.13)
- 부하라주지사 답신 접수 및 우호협력 체결 동의 의사 표명(5.5)
- 우호협력 체결(안) 상호 교환, 수정 및 최종합의(5~9월)
- 대구-부하라주-주한우즈베크대사관 실무자 회의 및 체결구체내용 협의(9.24)

■ 시장님 하실 일

- 대구-부하라주 우호협력협정서(국·영·우즈베크어) 서명

■ 부하라주 개황

구분	일 반 연 령
면 구	○ 1,92백만명('19) 중앙아시아국 11위인명
위치/면적	○ 키질름 사막 위치/ 40,320km ²
행정 구역	○ 농촌구 11개, 도시 11개
주요 인사	○ 주지사 : 자리포프 보티르 코미코비치(Zaripov Botir Komikovich) # 199.11.20. Qidduvon District 출신 ○ 부지사 7명
경 제	○ 수출 : US\$264m(이란,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중국 순) 수입 : US\$1,004m(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중국, 한국 순) ○ 산업별 비중 : 서비스업, 농업, 산업, 건설업 - 섬유산업(목화, 실크 생산, 업체 535개) ○ 우즈베크 부자환경 1위(보스틴컨설팅그룹 선정) ○ 주요광물 : 석회, 석고, 흑연, 석영, 모래 및 자갈, 가스, 석유 등 ○ 특별경제자유구역 21개(의약품, 농업, 관광 등)
도시 특성	○ 고등교육기관(지역 93, 외국계 21(인하데)), 15년 연속 우즈베크 내 대학진학률1위 ○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국제공항, 철도(1,100km), 고속도로(4,200km), 가스 파이프라인(10,200km) ○ 외자투자제한 : 3십만불~3백만불(3년 간 면제 - 토지세, 자산세, 물세) 3백만불~천만불(5년간), 천만불 이상(7년간) 주요투자분야 : 산업, 농업, 서비스업 주요투자국 : 러시아, 중국, 터키, 영국, 독일, 미국, 한국(8.4M) ○ 관광업 : 호텔 337개, 여행사 108개, UNESCO 유적지 829개 '2020년 이슬람 문화수도'로 선정,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유적지 ○ 스포츠 : 테슬링, 필드하키, 배구, 축구, 테니스, 복싱
교류가능분야	○ 섬유, 패션, 의료관광, 물산업, 한국어교육, 로봇산업

교류시 고려할 점

- 직접 연락의 어려움(언어 장벽), 답변 늦음
- 관련 자료 부족
- 신뢰할 만한 기관 활용
 - 주한외교공관, 주알마티 한국총영사관, 시도협, 한중양포럼 등
- 강한 공권력(알마티 포함 카자흐, 우즈벡 지자체 단체장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 알마티(지하철 1호선, 주로 버스나 자차, 철도?/내륙 도시-해양 관광?)

